

2 Peter 1-3

Tape #C2632

By Chuck Smith

Second Peter.

Simon Peter (1:1), 시몬 베드로

The name Simon, of course, was the given name. Peter is the name that Jesus gave to him. He is,

시몬은 원래 이름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a bond-slave and an apostle (1:1) 종과 사도인

It seems that bond-slave was first, apostle second.

그러니까 종이 먼저 이고 사도가 나중이란 말이지요.

of Jesus Christ, writing to those that have obtained like precious faith with us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God and our Savior Jesus Christ (1:1):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 하노니

So Peter identifies himself as the writer. He is writing to those who have received “like precious faith” and that word “precious” again; big, old, rough, tough Peter and yet this word seems to be one of his favorite words. 베드로는 자신이 저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편지를 받는 이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배로운 이란 단어는 늙고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베드로 에겐 다시 또 좋아하는 단어로 떠 올려 집니다.

Grace and peace be multiplied through the knowledge of God, and of Jesus our Lord (1: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찌어다

Grace and peace, typical greetings. But here Peter is praying really that they be multiplied. And how are they multiplied? The more you know God, the more you know Jesus Christ, the more you experience and are blessed by the grace of God and as the result, experience the peace of God. Grace and peace be multiplied. How? Through your knowledge of God and of Jesus Christ. Oh God is so gracious and you need to know Him so that you might know His grace towards us. So “grace and peace be multiplied through the knowledge of God, and of Jesus our Lord.”

은혜와 평화, 아주 전형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참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 마음이 넓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 갈수록, 또 예수를 그리스도를 더 알아 갈수록, 그분을 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입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화는 방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미암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분을 더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찌어다 ‘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as his divine power he has given unto us all things that pertain unto life and godliness, through the knowledge of him that has called us to glory [or by glory] and virtue (1: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Now God has supplied unto us everything that we need to live a successful Christian life. God really doesn't have to do any more for us; no extra work is necessary. God has given unto us all that pertains to a spiritual life, a life of godliness, and this abundance for this life comes to us again through the knowledge of God. How important that you come to know God. And how can you come to know God? There's only one resource book by which you can get a true understanding of God and that's the Bible. Your knowledge of God must come through God's revelation of Himself.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부가적으로 더 이상 뭔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앙적인 것과 영적인 삶에 관계된 것들을 주셨으며, 이제 이러한 삶의 충만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채워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우리가 그 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로만 가능합니다.

You see, if I develop what I feel God must be like, then I think of myself in my most ideal form and I project that as God. But that comes short. So I cannot accept man's understandings or revelations of God. They're all centered on that man's own personality and ideals. It is important that my understanding and revelation of God come from Himself, from His revelation of Himself. And of course, the most complete revelation came through Jesus Christ, "God, in sundry times and in divers ways spoke to our fathers by the prophets, but hath in these last days spoken unto us by His own dear Son" (Hebrews 1:1,2). 하나님이 어떤 분일 것이라고 내가 느끼는 느낌을 표현한다면, 나는 나의 안의 최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피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무나 부족하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나 계시에 대해 용납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들은 모두 인간 고유의 인격과 생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계시하신다는 것, 혹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 자신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가장 완전한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히 1:1,2)

So through Jesus Christ I come to knowledge and an understanding of God. And as I come to th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God, I grow in grace. And as I come to th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God, I find that God has given unto me everything that I need for this life, for a life of godliness. So he has called us by His glory and virtue,

And he has given to us exceeding great and precious promises: that by these ye might b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1:4),

And again, the word of God brings me the knowledge of God. The word of God helps me to then partake of the divine nature. The seed that brought me into spiritual life by which I was conceived spiritually was the word of God. Jesus said, “A man went forth to sow. Some of the seed fell by the wayside” and so forth. He said, “now the seed is the word”(Luke 8:11). It brings forth spiritual life. In the word are exceeding rich and precious promises and this brings a conformity to the divine nature. We need to make a thorough, complete study of the word of God. You cannot get too much of i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의 아는 지식과 이해에 다다랐을 때, 나는 은혜 안에서 자라날 수 있었지요. 내가 그분을 아는 지식과 이해에 다가갈 수록 나는 하나님이 내 신앙과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벧후 1:4)

그는 우리를 그의 영광과 선하심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도우시며, 또 나로 하여금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증거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씨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하며, 더 나아가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말씀

안에는, 풍성함과 순결한 약속과 신의 성품에의 조화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And the amazing thing that I've discovered about this Book is that every time I read it, there is something new, there is something fresh that ministers to my spirit. It never grows old. I never think, Oh, I've read that before or, Oh, I know that. For as I read it prayerfully and carefully, I find that the Spirit opens up a new vista of truth that I had never discovered before. It's a Book that is constantly unfolding its beauty unto my heart as I read it as I come to know God as I grow in that grace through the knowledge of God and of Jesus Christ. 매번 말씀을 읽을 때 마다 나는 성경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나를 상쾌하게 만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구식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전에 읽었던 것이며 알고 있던 것임에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깨달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주의 깊게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성령께서 나의 말씀을 보는 시각을 열어 내가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나의 심령에 그 아름다우심을 계시 하심으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Now these rich and precious promises, you know I think that you can find a promise of God that is adaptable for every kind of a circumstance that you might be facing. No matter what your problem is, there is a promise to match the problem, a promise that speaks to that problem. A promise of God's help or God's deliverance or God's provision, God's strength, whatever it is that you might need, God has given to us exceeding rich and precious promises that we are to lay hold of and we are to claim. And by these we becom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여기에 있는 풍성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여러분이 직면해야만 하는 모든 상황가운데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그 약속을 그 문제와 연관된 것이며, 그 문제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에 관한 약속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혹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또 능력, 무엇이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있는 약속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having escaped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through lust (1:4).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There is the source of the corruption in the world. We live in a world that is really messed up, a world that is corrupt. And what is at the heart of the corruption? The lust of man. The greed. But we've escaped that, thank God, through the knowledge of God and through the word of God and by partaking of the divine nature. How important it is that we constantly feed on the word of God because it is the word of God that feeds the spiritual man. 세상은 부패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온갖 부패한 것들로 복잡하게 뒤엉킨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패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육적인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식을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그것으로부터 탈피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을 살게 하는 양식이니까요.

Now there is the fleshly side of me, there is the spiritual side of me. I always take care to feed the fleshly side of me. It makes its demands. About 5:30 or so in the evening, the fleshly side of me begins to make its demands. And so I take care of it. I see that it is fed. I try to see that I have a well-balanced diet. That I get a proper balance of the grains, of the vegetables, of the fruits, of the green leafy vegetables, the yellow vegetables, and so forth, so that I can be strong physically. I like to eat a well-balanced dinner. I like to have a well-balanced diet. I grew up on it. If we would take as much care to feed the spiritual man as we do the physical man, how strong we would be spiritually. If we would make sure that we had a well-balanced spiritual diet. 나에게서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육적인 면을 돌보고 공급합니다. 육적 요구가 그렇게 만들지요. 저녁 5 시 반이나 초저녁이 되면, 육의 몸인 내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나의 육적 요구를 돌아보지요. 그리고 요구에 따라 공급합니다. 나는 영양이 풍부한 균형 있는 식사를 하려고 하지요. 나는 적당하고 균형 있는 곡식과, 야채 그리고 과일, 또 푸른 잎 채소와 노란 색 야채 그렇게 해 나아가면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균형 있는 저녁식사를 하기 원하는 데, 영양이 골고루 있는 것을 즐깁니다. 나는 그렇게 자라났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신체적인 몸에게 하듯이 영적인 몸에게 지극 정성을 다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도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지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But you see, too many times we just get into that book that I really, well, I'll read a psalm tonight because it's really short, you know. And I appease my conscience, you know, "well I read the Word today". But I really didn't feed on the Word. It's important that we go through the Word, that we have a well-balanced diet. It brings to us the knowledge of God. It brings us into the partaking of the divine nature.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그저 말씀에 심취하지요. '내가 오늘은 시편을 읽어야지. 왜냐하면 아주 짧으니까..' 또 '오늘은 목사님의 설교요약을 읽었으니 됐지. 다 똑같은 말씀인데 뭐' 그렇게 내 양심과 타협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정한 말씀이 공급된 것이 아닙니다. 영양이 골고루 공급될 수 있게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 다 주며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And so beside this, giving all diligence, add to your faith moral strength or moral courage (1:5);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The word "virtue" means one who stands in the face of opposition. One who doesn't run from the battle? '미덕' 이란 정반대에 직면한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도망치지 않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and to virtue knowledge; And to your knowledge temperance; and to temperance patience; and to patience godliness; And to godliness brotherly kindness; and to brotherly kindness love (1:5-7).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Now if these were rungs on a ladder that you were climbing, at which rung are you presently standing? Are you growing? Are you developing in your spiritual walk in life? In looking back, have you progressed this past year? Have there been real spiritual gains made in your life? Or are you just sort of treading water? Running on a treadmill? Maintaining? 만일 이 덕목들을 사다리의 가로대로 표현하자면 어느 위치에 여러분은 현재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성숙되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뒤를 돌아 보십시오. 작년보다 더 성숙했습니까? 진정한 영적 성장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물장구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것은 어떻구요. 틈틈이 복구는 하고 있습니까?

The Bible doesn't encourage us really to just maintain. It encourages us to grow, to develop, to add to our "faith virtue; and to virtue knowledge". To develop and experience the growth. And I would encourage you to look at your own life. Where are you standing? Where are you going? What are your spiritual goals?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복구만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라나라, 발전해라, 뿐 만 아니라, 믿음의 덕목에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발전하도 성장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당신의 영적인 목표입니까?

For if these things be in you (1: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Godliness, brotherly kindness, love, "if these things be in you," 경건함과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으라' 고 말합니다.

and abound, they make you that you will neither be barren nor unfruitful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1:8).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Your life will begin to really bring forth fruit. Sometimes people come and they say, you know, I feel so dry spiritually. Quite a witness against yourself, you haven't been growing, you haven't been diligent, "adding to your faith virtue; and to your virtue knowledge; and to your knowledge temperance"; and all. If these things are in you, if they abound in you, you'll never be barren or unfruitful. Your life wi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and the understanding of our Lord by which the grace and the love and the peace will be multiplied in your life. 여러분의 삶은 참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길,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너무 매 마른 것을 느낍니다.' 자라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여 전적으로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하며, 그 지식에 절제와 모든 것을 더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때,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은혜와 사랑과 평화로 다양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But if you lack in these things (1:9) 이런 것이 없는 자는

Go down the list again. If you're lacking in patience; in temperance, which is moderation; if you're lacking in love or brotherly kindness; then you're blind, spiritually blind to your real condition and your real need. 그 아래 부분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인내와 절제와 같이 중용을 지킬 수 없다면, 또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나 형제 우애에 인식하다면, 그것은 마치 소경과 같으며, 여러분의 실제적인 상황이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도 영적 소경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You know, it's a tragic thing that sin has its effect of numbing the senses of man. Our consciences can be deadened by repeated sin. You know the first time you did it, you felt so horrible. It bothered you. You really wrestled with it. And it was just miserable and you felt miserable. But you finally sort of got over and eased out of it. But the next time you did it, you didn't feel quite so badly about it. Until now, you can do it without even a wince. The numbing effect of sin. 죄가 사람의 감각을 마비시킬만한 영향력을 지닌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죄를 반복함에 따라 점차 둔해집니다. 여러분이 처음 어떤 일은 저지를 때, 여러분은 아주 끔찍한 기분 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몹시 괴롭혔겠죠. 정말 이것과 씨름 하며 비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다음 번에 그 일을 다시 저질렀을 때, 여러분은 아마도 이전같이 그렇게 괴롭진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주춤거림 하나 없이 일을 저지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마비시키는 죄의 영향력 입니다.

That is, of course, one of the deadly characteristics of drugs is the first thing they attack is your will. And they destroy your willpower so that a person can easily become addicted to drugs because they attack that part of your body or make-up that would resist doing such a thing. And destroying your willpower, you then become its victim. 약물의 아주 악한 성질중의 하나는 첫째로 여러분의 의지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쉽게 중독이 되게 함으로 이런 것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의 기능을 공격함으로 의지력을 파괴시키려 합니다. 의지력이 파괴된다는 것은 그것의 희생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Sin is much the same way. It is blinding. It brings to you shortsightedness; that is, we lose the sense of the eternal. And that is always dangerous when we lose the sense of the eternal. We cannot see afar off. We only see the immediate advantage. We only see the temporary gain but we don't take eternity into our consideration. And the moment you leave out the eternal, you have lost the perspective for life, you've lost the sense of good judgment and you're apt to do foolish things because you don't have eternity in view. May God ever keep in the forefront of our minds the consciousness of eternity and the fact that we stand on the threshold of eternity every day. 죄도 마찬가지로이죠. 이것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근시안이 되게 합니다. 영생에 대한 감각을 잃어 버리게 만들지요. 이 감각을 우리가 잃어 버리는 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멀리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즉각적인 이익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임시적인 이익만 보일 뿐 영원한 것을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원한 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영원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올바른 판단력과 삶의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영원에 대한 지각의 정신을 지켜 주시고 날마다 영원을 사모하는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None of us know when we're going to take that step. And yet we plan as though we are going to be here forever. But how many are like that rich man of which Jesus spoke when He said, "He said, I am rich, I'm increased with goods, I have need of nothing. And the Lord said, Thou fool, this night your soul can be required of you" (Luke 12:18-20). He was laying up his plans. I'm going to tear down my barns, build bigger, and so on. This night, it's all over. We live on the border of eternity. And we need to have that in our minds. What is the eternal value? What is the eternal effect? 우리중의 누구도 언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영원히 여기 있으려 하겠지요. 얼마나 많은 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까요 누가복음 12 장 18 절에서 20 절 말씀입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부자는 자신의 계획을 쌓아 놓았습니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으리라,,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났지요. 우리는 영생에 접하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영생을 담고 살아야 합니다. 영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영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Oh, it may have a temporary value for us. It may bring us excitement for right now but what's it doing for me eternally? It may seem to be the proper or the exciting thing to do right now, but what about the eternal? 아마도 우리에게겐 여러 가지 일시적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쾌락을 주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즐겁고 흥미롭다 해도 영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습니다.

And when we lose sight of eternity, we become 우리가 영원에 대한 시각을 잃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blind, we cannot see afar off, and we soon forget that we've been purged, we've been washed from those old sins. So give diligence to make y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for if you do these things, you will never fall (1:9-10):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케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Now there are always those who are questioning the security of the believer. And yes, the believer is secure. "If you do these things, you'll never fall." If you are adding to your faith virtue; and to your virtue knowledge; and to your knowledge temperance; if you do these things, you're never going to fall. You're moving on towards Him. 많은 믿는 자들 중에는 삶의 보장에 대해 늘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보장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며 지식에 절제를 더하는 이 모든 것을 행한다면 결코 실족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향해 더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

For so an entrance shall be ministered unto you abundantly into the everlasting kingdom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1:11).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What kind of an entrance you going to have into heaven? Just barely squeak in. There used to be a song and I hated it; “If I can just make it in”. And I thought that it was reflective of the attitude of too many people. You know, if I can just make it in, that’s all, man, just make it in. That’s all I want. I want to have an abundant entry into the kingdom of God. You know, I don’t want to just run the race and hope to finish the race. I want to win the race. “Know ye that they which run in a race run all, but only one receives the prize. So run, that you might obtain” (1 Corinthians 9:24). This lackadaisical attitude towards the Christian walk and life is a curse to so many people within the church. Peter here encourages you towards the abundant entrance into the kingdom, the everlasting kingdom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곳을 통과하게 될까요?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곳이거나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노래 ‘ 만일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들리는 곳일까요. 나는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 했었습니다. ‘내가 만일 들어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다입니다. 들어가는 것.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입구를 원합니다. 나는 마치 어떤 험겨운 경주를 그저 달리는 것이나, 그 경주가 끝내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경주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 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고전 9:24)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길과 인생에 있어 맥 빠진 모습으로 행하는 것은 교회 안의 많은 사람들에게겐 저주와도 같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풍성한 문을 향하도록 우리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Wherefore [Peter said] I will not be negligent to put you always in remembrance of these things, though you know them, and are established in the present truth (1:12).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Now I know you know these things, Peter said. But I want to remind you. There are things which we as Christians it seems need constant reminding, certain areas. It’s easy to just

begin to slough off and to become careless or indifferent. And so there are areas where we need constant exhortation, constant prodding, constant reminders. And Peter is saying, I know you know these things but I want to bring them to your memory again. 나는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고 있으리라 믿지만, 베드로의 말처럼 나 역시 여러분을 다시 상기시키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써, 우리는 지속적인 다짐과 변함없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거나 또는 무관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그냥 탈피하기 것은 쉽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지속적인 권고와 주의를 환기시키는 격려 그리고 변치 않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줄 알지만 너희가 기억하는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겠노라 ‘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en he said,

Yes,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as long as I am in this tabernacle [or in this tent], to stir you up by putting you in remembrance; Knowing that shortly I'm going to move out of this tent, even as the Lord Jesus Christ has showed me (1:13-14).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

So Peter referring to this body as a tent which is New Testament scripture; as long as I'm in this tent, that is, in this body, I think it's necessary that I remind you of these things, and I'm going to be moving out of this body pretty soon because the Lord has showed me. And thus, really writing them to you so that even after I'm gone you'll still be reminded. Purpose of the letter, to write these important things that they might be continually reminded of them and even after he's gone they will have the reminders as they read the letter. 베드로는 이 몸을 신약성경에서 장막으로 비유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이 몸, 이 장막에 거하겠지만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대로 이 장막을 속히 떠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환기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기시키기 위해 이 글이 쓰여진 것이죠. 이 서신의 목적은 그리스도몸을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다짐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의 몸은 갔어도 편지에 쓰여진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다짐하게 할 것입니다.

I like the idea of thinking of this body as a tent because a tent is never thought of in a term of permanent dwelling place. It's always looked upon as something temporary, ready to move on or move out of. Good for a couple weeks' vacation but living in a tent can get tiring, good to get back in the house, the conveniences of the house. Now we are told that when this tent is dissolved, that "we have a building of God, that is not made with hands, that's eternal in the heavens" (2 Corinthians 5:1). Peter said, I'm going to be moving out of my tent pretty soon, even as the Lord has shown me. 나는 이 육신의 몸을 장막으로 표현한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막이란 지속적으로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이며, 떠날 준비를 한다는 뜻이죠. 몇 주 동안의 휴가로는 좋겠지만, 그곳에서 계속 산다는 것은 몹시 피곤한 일이지요. 아마도 편안하고 안락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후 5:1)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자신이 거하는 장막을 곧 벗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oreover I will endeavour that you may be able after my decease to have these things always in remembrance. For [Peter said] we haven't followed cunningly devised fables, when we made known unto you the power and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but we were eyewitnesses of his majesty (1:15-16).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I think that we need to at least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these were cunningly devised fables. That these fellows conspired together, sat down, developed the story, rehearsed the story, and then sought to spread the story. Because the moment you take that into consideration, you see how ludicrous it becomes, and you can see that it could not be a cunningly devised fable because too many people have examined it and studied it thoroughly. That if there were just a cunningly devised fable, there would have been the flaws that could have been discovered and the whole thing discarded long ago. You see, there's not one stone in this whole story that

hasn't been examined carefully, turned over, studied every aspect of it. 나는 우리가 적어도 이것들이 교활한 상상으로 꾸며진 이야기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추종자들이 모여 앉아 음모를 꾸미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다시 연습도 해보고, 이야기를 어떻게 퍼뜨릴까 방법을 강구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완벽한 공부와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결점이 드러나지 않을 리 없고 벌써 오래 전에 모두 포기되어 졌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체는 경험하지 않은 것이나, 혹은 여러 양상을 공부하여 변형한 것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될 것입니다.

If it were just a cunningly devised fable, then you could not explain its power to change men's lives so dramatically, the power of the Gospel. And we see witnesses of the power of the Gospel all around us in lives that have been transformed. A cunningly devised fable couldn't do that. Peter said, "But we were eyewitnesses of his majesty." 이것이 만일 꾸며진 이야기라면 사람들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 시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으며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변화된 삶을 통해 말씀의 능력과 그 증거를 보게 되지요. 꾸며진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베드로는 증거하기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자라' 고 말합니다.

For he received from God the Father honour and glory, when there came such a voice to him from the excellent glory declaring,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And this voice which came from heaven we heard, when we were with him in the holy mount (1:17-18).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Now Peter was taken with James and John up into a high mountain by Jesus. And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and they saw Him in His transfigured glory with Moses and Elijah appearing and talking unto Him. And then when the disciples looked up again, Moses and Elijah had disappeared and Jesus only was standing there. "And then there came that voice from heaven saying, This is my beloved Son, hear ye him" (Matthew 17:5). You see, they had heard

the law, they had heard the prophets. And now God is saying, listen to my Son. “God who at sundry times spoke to our fathers in divers ways by the prophets hath in these last days spoken by his own dear Son.” “This is my Son, hear ye Him.”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끌리어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고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와 더불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의 제자들이 다시 보려 했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사라졌고 예수님만 홀로 서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7 장 5 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은 율법을 들었고 예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1 장 1 절에 말했듯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고 하시는 것입니다.

The law came by Moses; grace and truth by Jesus Christ. And so Peter said, We heard the voice, we saw, we were eyewitnesses. 모세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진리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고, 보았으며, 증인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ut we have a more sure word of prophecy; whereunto ye do well that ye take heed, as unto a light that shineth in a dark place, until the day dawn and the day star comes, arises, even Jesus Christ (1:19):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Now this prophecy, the word of God is like a light that is shining in a dark place until the day dawns. During the nighttime, yet you have a light to guide you. Through the darkness of human history there is a light to guide us until that day that is prophesied does dawn,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동이 새는 새벽에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밤이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역사를 지나는 동안, 계시된 예언의 때가 오기까지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해 주었지요.

So this sure word of prophecy, one of the strongest apologetics for the scripture, of course, is the area of prophecy. The fact that the Scriptures prophesied so many things that have all come to pass and the prophecies were one hundred percent accurate. I mean, all you'd have to do is fail in one prophecy and the whole thing could be discredited. That's why delving into the field of prophecy is so precarious. You want to become a prophet, it's a lot easier to become a false prophet than a true prophet cause you may give ninety-nine true prophecies in a hundred; might miss, tough, you're a false prophet. Oh, but I got ninety-nine right. Yeah, but you missed one. I mean, it requires a hundred percent accuracy. 말씀에 있어 가장 강력한 변증론은 당연히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많은 예언들이 100% 확실히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요. 여러분이 선포한 예언의 하나라도 실패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왜 예언이 신빙성이 없는지 연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언자가 되길 원한다면, 참된 예언자가 되기 보단 거짓 예언자가 되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백에서 99%의 참된 예언을 했다 해도 남은 1%로 인해 여러분은 얼마든지 거짓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오 저는 99%가 분명히 맞는데요.' 예언은 반드시 100%가 정확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There are people who are blinded by religious fervor who are willing to overlook the fact that Joseph Smith said that the moon was made out of cheese. And that the Jehovah Witnesses predicted that Jesus was coming in 1917 and then later in 1925. A sure word of prophecy. It's a dangerous subject to go out on a limb and because the word of God, it's there. It ventures into that field. That's because God spoke. 세상에는 종교적인 열정에 눈이 먼 나머지 분별이 어두워, 조셉 스미스같이 달이 치즈로 만들어졌다는 말도 너그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가 1917년에 온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여 1925년에 온다고 예언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것은 우리를 곤란에 처하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주장들입니다.

Now, no prophecy of the scripture is of any private interpretation (1:20).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I am not amused at many of the private interpretations people get for scriptures. Some special revelation that no one has ever seen before and God has given to me, you know. I don't think that I have ever discovered any new truth. Someone said, "Is that the honest truth?" Well, if it's true, it's honest. There's no scripture for private interpretation.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 일로 인해 어떤 새로운 진리를 더 발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게 진짜 진리입니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참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개인적인 해석을 위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But the prophecy in the old time did not come by the will of man: but holy men of God spoke as they were moved by the Holy Spirit (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임이니라

And so here we find the word of God attesting to the inspiration of the Scriptures. As Paul writing to Timothy said,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2 Timothy 3:16). Now this is one of those points that Satan is constantly attacking. There are three basic areas where Satan is constantly assailing. One is the word of God. The second is the deity of Jesus Christ. And the third i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d Satan is constantly attacking these three things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영감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했는데, 이것이야 말로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그 첫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며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이 세가지를 끊임 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The word of God: "Hath God said?" And he continues to attack the word of God. And because this is one of the fields of his attacks, as Peter here mentions that the Scriptures were inspired by the Holy Spirit, it is only natural that he now turns to warn us against the false teachers that will come along in the last days. And one of the main premises of these false teachers is that the word of God is not inspired. That it is the fallible word of men. Or that it is so interspersed with man's concepts and man's ideas that in places it becomes unreliable. So "holy men wrote as they were inspired of the Holy Spirit." But even in the Old Testament times,

there were false prophets. 베드로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증거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오히려 그 말씀을 공격할, 거짓 선생들을 대적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중심 논리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이 아니며 사람들의 오류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생각들을 곳곳에 짜 집기 해 놓은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령에 감동된 신령한 자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지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은 구약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At the time of Jeremiah there were false prophets that were telling the king that he was going to prosper, that he was going to defeat the enemy. Jeremiah gave to the king the true prophecy. The king didn't want to hear Jeremiah. These false prophets made fun of Jeremiah. The one made a set of horns and went running around and said, So the king is going to push the enemies out of the land and all. And they were prophesying, "Peace, peace," when there was no peace. 예레미아 시대에 있었던 거짓 예언자들은 왕에게 예언하길 그가 번창할 것이며 그의 적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아는 왕에게 반대적인 내용이었지만 참된 예언을 전했는데, 왕은 그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아는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나팔을 만들어 온 곳을 두루 다니며 왕이 그 대적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몰아 낼 것이라고 선포했으며 또 예언하기를 ' 너희가 평안하리라' 고 했습니다.

False prophets have always been around. Now they don't wear signs, "I'm a false prophet". They come in sheep's clothing. They look like sheep. They come sometimes dripping with love and phrases of love. And a lot of times you listen to them and say, "Boy, they're good. They really speak a lot of truth". And that's why they are able to deceive. If a false prophet only said false things, no one would be deceived by them. But usually what they say is ninety-five percent true. And thus they entice people and deceive people because most of what they say is true, but then they begin to interject that area of falsehood.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 어떤 표식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마치 양같이 보입니다. 때론 그들이 사랑의 말들과 사랑을 줄줄 흘리고 다니기 때문에 영락없이 속기 일쑤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그 사람들 정말 괜찮아.. 맞는 말만 한다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오직 거짓을 말하면

아무도 그들에게 속지 않겠지요. 그들은 항상 95% 정도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속이면서 거짓된 말들을 불쑥 던지기 시작하지요.

So there were false prophets among the people, even as there shall be false teachers among you, who privately shall bring in damnable heresies, even denying the Lord that bought them, and bring upon themselves swift destruction (2:1).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False teachers who will even deny the Lord. There are those who claim to be ministers who fill the pulpits in the United States who deny the deity of Jesus Christ, “even denying the Lord who bought them.” Willing to put Jesus in the category of a master teacher or of a great prophet or whatever. But they deny the Lord that bought them.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미국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자기들을 사신 하나님마저도 부인하면서도 교단을 조직하여 스스로 사역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대단한 선지자 정도나 유능한 학자의 범주에 넣어 취급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기들을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And many shall follow their pernicious ways; by reason of whom the way of truth shall be evil spoken of (2:2).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좃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훼방을 받을 것이요

It sort of is heartbreaking that whenever any antichrist, anti-god kind of legislation or anything comes along, and the papers are making their interviews of the ministers to get their opinions of it, they can always find some Unitarian minister or Disciples of Christ minister or something who take an anti-god, antichrist position. And they are the ones that they're always seeking to exploit, you know, to make it look like, you know, the ministers are even in favor of this bit of vicious legislation that would open the door to pornography because you know some reverend said it. You know, he thought it was healthy and all for people to be able to examine. I just; well God's going to take care of them. But they like to put down those who just plainly declare the truth of God as being ignorance and unlearned and all. Well, so be it.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나 무신론자들에 의해 그들의 의견이나 규칙 같은 것을 첨부한 회견 기사나 잡지들, 이런 것들이 끊임 없이 만들어지는 일은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은 일신회의 사역자나 그리스도 제자회 혹은, 적그리스도나 무신론자의 자리에 앉은 이들을 언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은 항상 이용할 것들을 찾는 자들인데, 예를 들면 어떤 신부가 주장한 대로 음란 물들을 받아들이는 사악한 법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것이 아주 건전한 것이며 이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시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겠지만 그들의 태도는 마치 무지한 자나 전혀 배우지 못한 자들 같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And through covetousness shall with feigned [or deceitful] words make merchandise of you (2:3):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The true shepherd wants to feed the flock of God; the false teacher wants to fleece the flock of God. And they have developed so many gimmicks to fleece the flock of God. And of course, the latest is the computerized personalized letters. "You've been on my heart of late. The Lord woke me up this morning and I was praying for you. Is there something wrong? Please tell me why is it that I feel so disturbed about you lately. Why don't you write and let me know so that I can pray for you even more. And please enclose a gift, you know, so that I can carry on this ministry that God has given to me". "With feigned words, deceitful words, they seek to make merchandise of you." 참 목자는 하나님의 양을 먹이려 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양의 털을 원할 뿐입니다. 그들은 양들의 털을 깎아 내기 위해 많은 궁리를 만들어 내고 그 수법은 날로 발전합니다. 물론 가장 최신 것은 컴퓨터화된 것이나 혹은 개인적인 편지들이죠. '요즈음 나는 온통 당신 생각 뿐입니다.' 혹은,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셨는데 당신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요즘 당신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걱정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편지라도 주시면 내가 기도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선물을 동봉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것을 가지고 이 사역에 사용 하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라고 말합니다.

They buy mailing lists and then send out these letters, like they, you know, were your long lost cousin you haven't seen in ten years. And that you've been just a burden on their heart lately. And oh how they love to come right into your home and sit down with you and share with you but you're so busy, you, they know that you wouldn't have time for them. 그들은 주소록을 사서 그 주소들에 이런 편지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치 한 10 년은 만날 수 없었던 그들의 잃어버린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던 짐처럼 말이죠. 어떻게 그들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 함께 앉아 여러분과 더불어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바쁘는데 말이죠.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없음을 이미 아는 것입니다.

And I don't know if I'm going to make it through chapter two. I just wonder, though, how this must hurt the heart of God to be so misrepresented by man. You know that upsets me and hurts me and I'm not the, you know, purest person in the world, but if these things so disturb me, how much more must they disturb God to be thus represented by man, as a charlatan, as a crook, as a deceiver, as a conniver, as a moneygrubber, covetous. They'll use these feigned, deceitful words to make merchandise of you or merchandisers of you. Beware of anybody who wants to put you out on the street corner selling magazines or flowers or dolls or whatever so that the money can all go to their fund. The Messiah Moon has kids selling peanuts in parking lots, making merchandise of people. 사실 나는 베드로 후서 2 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바는, 인간들로 인해 그릇되게 알려진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허풍쟁이 사기꾼에 험잡꾼이요 목인 하는 자로, 부정 축재자에 탐욕 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걸치레와 사기성의 말로 여러분에게서 이를 삼고 자신의 유익을 갈취하려 들 것입니다. 잡지나 꽃 혹은 인형을 파는 등, 무엇이든 그들에게 돈이 될만한 것을 위해 여러분을 거리 한 구석으로 내 모는 이들을 주의 하십시오. 문선명 교주같이 아이들을 주차장에 나가 땅콩을 팔게 하거나 물건을 만들게 시키는 사람 말입니다.

We were in a restaurant back in Indiana and this kid came in late at night, it was after service and we were getting a bite to eat, and this kid came in and he had these little teddy bears that clip on, you know. And he wanted to, you know, he was a fast talker, smooth talker, and going to pin him on everybody you know and here I want to give, you know, here have one of

these, you know, I want to give you one. And then, of course, having pinned it on you and wanting to give it to you, then he wanted a donation. And I said, “Are you related to, you know who is this for? And some youth thing you know, Youth Mission downtown.” I said, “Is it related to Moon’s ministry?” “Oh no, no, no.” I said, “Are you sure?” “Oh yes, it’s not related to Moon.” Oh we kept talking and pretty soon, it was related. Just a liar. But he had been, you know, they made a merchandiser out of him. They were using the kid to go out at night and sell these things for their profits. 인디애나에 갔을 적 얘기 입니다. 예배가 끝난 뒤 늦은 시간에 우리는 음식을 먹으려던 차였는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아이는 작은 장난감 곰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빠르고 유창한 말로 우리 모두를 자기에게 집중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주고 싶다, 하나를 가져라,, 등들의 말로 하다 결국은 기부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시내에 있는 청소년 모임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문선명그룹에 관련되어 있니?’ 라고 묻자, ‘아니오. 절대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 정말이냐?’ 라고 되물었고 그는 정색을 하며 결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게 되었고 그 집단의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단은 그 소년을 잡상인으로 삼아 그를 이용하여 자신들을 위해 밤에 나가 물건을 팔게 한 것입니다.

Peter said,

whose judgment now of a long time lingereth not, their damnation slumbereth not. For if God spared not the angels that sinned, but cast them down to hell (2:3-4),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And the word there is “Tartarus”, the lowest hell. ‘타르타로스’ 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합니다. 4 절 말씀,

and delivered them into the chains of darkness, to be reserved unto judgment (2:4);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Now who are these angels that sinned who were cast down to Tartarus? Well, we know that Satan isn’t there yet and that many angels that rebelled with Satan are not yet incarcerated but are working with him in his nefarious deeds. We are told in the book of Revelation that Satan

was cast out of heaven and drew a third part of the stars with him. Many Bible commentators believe that these angels are the ones, who in Genesis nine began to cohabit with men. “And the sons of God saw the daughters of men” (Genesis 6), “saw the daughters of men that they were fair” and all, and that these angels who kept not their first state are being reserved there in the chains in Tartarus. 여기에 죄를 짓고 쫓겨나 타르타루스로 옮겨진 천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기로 아직 감금되지 않은 사탄과 함께 반역한 천사들은 아직 그곳에 있지 않죠. 그러나 그의 사악한 일들을 함께 자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탄은 천국에서 쫓겨난 바 되었고 나머지 3분의 일의 일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떨어져 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이 천사들은 창세기 6 장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과 더불어 동거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창 6:2) 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바로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자들이며, 타르타로스의 사슬에 묶일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If God spared not the old world, but saved Noah the eighth person, a preacher of righteousness, bringing in the flood upon the world of the ungodly; And turning the cities of Sodom and Gomorrha into ashes condemned them with an overthrow, making them an example unto those who afterwards should live an ungodly life (2:5-6);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Now there is a lot of deception. As we pointed out, man who is living an ungodly life is blind. He cannot see afar off; he becomes nearsighted. He loses his sight of the eternal. And because God is merciful and longsuffering and patient, man often misinterprets this longsuffering of God as weakness or as blindness on God’s part or as, God forbid, approval by God of what I’m doing. If God didn’t like what I’m doing, why didn’t He wipe me out, you know? It’s a mistake. And people begin to think that God has withdrawn Himself. That God is

just letting things go on. That God really doesn't care what's happening.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인간은 장님과도 같습니다. 그는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것만 겨우 보는 근시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에 대한 시각을 잃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유하시며 자비로우셔서 오래 참으시는 분인 까닭에 사람들은 종종 그 분을 오해합니다. 아주 약해 빠진 분이거나 혹은 어느 한쪽의 눈이 가려진 분으로 말이죠. 게다가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금지시키는 분이고 그래서 늘 허락을 받아 내야만 하는.. 그렇게 생각해 버리기 쉽지만, 사실 여기에는 많은 속임 들이 숨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왜 주님께서 아직 나를 제거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야말로 정말 큰 실수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고립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걸 그냥 두고 보신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혹은 전혀 상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But Peter points out that God has brought His judgment in the past, the angels which are cast down to Tartarus. The old world before Noah's time, the cities of Sodom and Gomorrah and that they are examples to those who would want to live an ungodly life. Your Day of Judgment is coming. You're not going to get by with it. Though you may get by for a time, there is a day of reckoning coming and it's a warning to man that one day there will be a day of reckoning and you're going to answer for the things that you've done and are doing. 그러나 베드로는 증거하기를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과거에 결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결국은 타르타루스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노아의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 없이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의 심판을 받은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시간을 좀 번다고 해도 셈을 해야 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은 인간에게 늘 경고 되어 왔으며 이제 그날에 여러분은 자신이 행한 것과 행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Now when God destroyed Sodom and Gomorrah, He saved Noah. He saved Lot. Lot who was, Or the filthy behavior of the wicked. 무법과 음란의 세대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당하는 중에 있을 때 노아를 구하셨던 하나님이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 장 7 절과 8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He did deliver just Lot, vexed with the filthy manner of living of the wicked around him (For that righteous man dwelling among them, in seeing and hearing, his righteous soul was vexed from day to day with their unlawful or ungodly deeds) (2:7,8);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When you read about things like West Hollywood voting their own city government, does it vex you? When you read of the things going on in San Francisco, does it vex you? When you read of some of the things happening in our own community, does it vex you the way people are living? If it doesn't vex you, then you're in bad shape. It means that you've become perhaps calloused, not sensitive in spirit anymore. And that could very well be because of the looseness of the guard that we have over our mind. 할리우드에서 벌어지는 자체행정을 위한 선거유세기간동안 날마다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읽을 때, 여러분은 혹시 짜증나는 일은 없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일 해가는 방식에 불만스럽지는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크게 감정의 동요가 없다면 여러분은 아주 무심한 사람이거나 냉정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쨌든 더 이상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 어떤 제어장치가 있어 감정이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게 우릴 지켜 준다는 것은 정말 괜찮은 일입니다.

You know it's tragic that many Christian homes have brought filth into the homes through the video, through VCR units or through cable TV or some of these select types and have brought into their homes all kinds of filth, whereby our minds being glutted with the filth, we no longer are vexed by the way people live around us. We just sort of become tolerant to the evil of our society rather than being vexed, having just being moved by the evil that is around us. God help us. God bring us to a purity. 요즘 많은 크리스찬 가정에 비디오나 케이블 TV 등을 통해 불결하고 추잡한 것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테이프들이나 온갖 부도덕한 것들로 육적인 욕구를 채우려 할 뿐 아니라 이젠 더 이상 개의치도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들이 속한 사회와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아주 관대하게 여길 정도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I wonder how many of you have been to an R-rated movie in the last month. What pollution you've sown into your mind. Don't you realize that God isn't deceived? "Whatever a man sows, that shall he also reap" (Galatians 6:7). And if you sow to the flesh, of the flesh you're going to reap corruption. You can't escape it. God isn't mocked. There is a law of nature, of sowing and reaping in kind. And you sow that kind of stuff in your mind, you're going to begin to reap it in your life. You can't escape it. 나는 여러분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달에 성인 영화를 접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불순물로 오염되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7) 만일 여러분이 육신의 것을 심으면 부패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법칙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니까요. 자연의 법칙에도 그러하듯이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심었다면, 그로부터 똑같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Lot was vexed by the way they were living as he saw their unlawful deeds. But God delivered him before the judgment came because 롯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전에 오셔서 그를 구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2 장 9 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God knows how to deliver the godly out of temptations, and to reserve the unjust unto the Day of Judgment to be punished (2:9):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And even so, God's Day of Judgment is coming very soon and those that are walking with the Lord, vexed by the evil of the world will be delivered before the Day of Judgment comes. God knows how to deliver the righteous.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세상의 악에 마음이 상해 있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던 이들은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구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인들을 어떻게 구할지 알고 계십니다.

I cannot, I cannot accept that the church will be here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when God's wrath and judgment is poured out upon the world for its unrighteousness. When God punishes the world for its unrighteous living, I cannot accept the fact that the church will be here. I cannot believe that. The Lord knows how to deliver the righteous. And the whole story of Lot, when the Lord was going down to destroy Sodom and they stopped by and visited with Abraham. And Abraham's basic argument was, "Will not the Lord of the earth be fair? Would you punish the righteous with the wicked? What if there are fifty righteous?" And the whole premise of the argument is that when God's judgment comes, God will not punish the righteous with the wicked. And thus when God's judgment and punishment comes upon this cursed world, He's going to take first, as He took Lot out of Sodom, He's going to take His children out of this earth. "The Lord knows how to deliver the godly out of the temptations, but to reserve the unjust to be punished."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온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대 환란의 기간동안에 교회가 여기 남아 있으리란 주장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불의한 자들이 심판 당할 때, 교회가 여기 남아 있을 거란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어떻게 건지실지 분명히 아시니까요. 롯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기 위해 내려 오셨을 때,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성 안에 의인이 쉰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서는 그 성을 기어이 끌어 버리시겠습니까? 의인 쉰 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논쟁의 중점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돔을 멸하실 때, 그는 먼저 롯과 그 자녀들을 그곳으로부터 옮기 셧던 것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베드로 후서 10 절에서 16 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But chiefly [those to be punished are those] that walk after the flesh in the lust of uncleanness, they despise government. They're presumptuous, they're selfwilled, and they're not afraid to speak evil of dignities. Whereas angels, which are greater in power and might, bring not railing accusations against them before the Lord. But these, as natural beasts, are made to be trapped

and destroyed, and they speak evil of things that they understand not; and shall utterly perish in their own corruption.

And they shall receive the reward of unrighteousness, as they that count it pleasure to riot in the day time. But they are spots and blemishes, sporting themselves with their own deceivings while they feast with you; They have eyes that are full of adultery, they cannot cease from sin; they are beguiling unstable souls: a heart they have exercised with covetous practice; they're cursed children: And they have forsaken the right way, and they've gone astray, following the way of Balaam the son of Bosor, who loved the wages of unrighteousness; But was rebuked for his iniquity: the dumb ass speaking with a man's voice forbade the madness of the prophet (2:13-16).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훼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훼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삶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벧후 2:13-16)

Now here speaking of these false teachers, he is so descriptive that really no commentary is necessary, except perhaps on the way of Balaam who was using his gift for his own personal profit. Being covetous of the rewards offered by the king, he prostituted the gift that God had given to him, loving the wages of unrighteousness. 이 긴 내용은 거짓 선생들에 관한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묘사나 해설이 없이, 자신의 은사를 사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한 발람의 예를 제시 합니다. 왕으로부터 내려진 상급에 탐이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돈을 위해 악용한 사람이죠. 그는 불의의 삶을 사랑하였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Now these men are wells without water, they are clouds that are carried with a tempest; to whom the mist of darkness is reserved for ever. For when they speak great swelling words of emptiness, they allure through the lusts of the flesh, and through much wantonness, those that were clean escaped from them who live in error. And while they promise them liberty, they themselves are the servants of corruption: for of whom a man is overcome, of the same is he brought into bondage (2:17-19).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 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Quite a powerful scripture. “By whom a man is overcome,” if you’re overcome by a false prophet, then you are “brought into bondage by them”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에게 진다면, 여러분은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For if after they have escaped the pollutions of the world through the knowledge of the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they are again entangled therein, and overcome, the latter end is worse with them than the beginning. For it had been better for them not to have known the way of righteousness, than, after they have known it, to turn from the holy commandment delivered unto them (2:20-21).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Knowledge is responsibility. Once you've come to the knowledge of truth, you are responsible. Better really not to know. Jesus in Luke's gospel chapter twelve spoke about that servant who was given a position of overseeing his master's goods while the master went to a far country, and when the master didn't return, when the servant was expecting him, he said, "My Lord delays his coming"(Luke 12:45). And he began to abuse his position, mistreating the other servants, beating them and all. And the master came in an hour when he wasn't expecting him. And he said, "Bind him up and cast him out. Give him his portion with the unbelievers". For he who knew the will of God and did not accordingly, Jesus said, "will be beaten with many stripes though he who knew the will of God or knew not the will of God yet did things worthy of many stripes will be beaten with few". For whom, to whom much is given, much is required. To whom little given, little required (Luke 12:42-48). Knowledge is responsibility. I mean, God holds you responsible for what you know. 지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어느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은 점점 나아져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 장에 보면 주인이 먼 나라를 다녀올 동안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책임 주어진 종에 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길 기대했지만 그가 오지 않자, 그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곧 자기 직무를 이탈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돌봐야 할 다른 종들을 때리거나 상하게 하고 더욱이 혹사까지 시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시간에 주인은 돌아와 그 불의한 종을 가르키며 '그 종을 묶어 내쫓아 신실치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받게 하라' 고 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2 장 47,48 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은 자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It'd be better off to have never known than to know it and then to turn away. To know the truth and then to turn away from the truth puts you under a great jeopardy because now you are responsible. It isn't sinning ignorantly. It is knowingly. 뭔가를 아는 것보다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그냥 피하는 게 좋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그 진리를 외면하는 것은 여러분을 큰 곤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알고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But it is happened unto them according to the true proverb, The dog is turned to his own vomit; and the pig that was washed to her wallowing in the mire or the mud. [Now Peter said] This second epistle, beloved, I now write unto you; in both which I stir up your pure minds by way of remembrance: That ye may be mindful of the words which were spoken before by the holy prophets, and of the commandment of us the apostles and of the Lord and Saviour: Knowing this first, that there shall come in the last days scoffers, who are walking after their own lusts (2:22-3:3),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 하였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들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찌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So he's warned us concerning the false teachers that are going to arise. Now in the last days also there will be scoffers, and the scoffers are going to be ridiculing the idea of the coming again of Jesus Christ. They're going to be,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짓 선생들을 주의 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조소하며 비웃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베드로 후서 3 장 4 절 말씀입니다.)

Saying, Where is the promise of his coming? for since the fathers fell asleep, all things continue as they were from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3:4).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That is a very clear articulation of the theory of Uniformitarianism. The theory upon which the evolutionary theory was built. "All things continue as they were from the beginning of creation." Uniformitarianism. So that anything that is happening today or anything that has happened in history can be explained by things that are happening today. There's a uniform pattern by which things take place and have always taken place from the beginning of creation. And Uniformitarianism really denies any great cataclysmic judgments or changes. And of course, that whole concept was really shaken by Emmanuel Villakosky in his books, Worlds in Collision and Earths in Upheaval. And he gives damning evidence to prove that the whole concept of Uniformitarianism is not valid. 이것은 동일 과정설 이론의 명료한 조합입니다. 물론 진화론에 바탕을 두고있지요. '모든 것은 처음 창조 되어진 모습대로 계속 된다.' 이것이 동일 과정설의 이론입니다. 모든 것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도 발생했다고 유추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것이나 혹은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로써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창조의 시작부터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형태로 진화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 과정설은 격변설의 관결이나 어떤 변화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임마누엘 벨리콥스키의 책 '충돌하는 세계'와 '격변의 지구' 가 나오면서 모든 이론들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동일 과정설에 아주 불리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이 이론이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Peter said there will be scoffers who will say, Where is the promise of His coming? Things have just going on as they were from the beginning.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But this they are willingly ignorant of (3:5),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 절) 말씀입니다.

In other words, they had closed their mind to this truth that there has been cataclysmic catastrophes that have happened upon the earth. And one of these cataclysmic catastrophes was the great flood of Noah's time. And the great flood of Noah's time gives a far more reasonable

explanation of fossils than does the concept that they were gradually laid down over several periods of eons, or geological eras, gradually depositing these various fossil forms in the various geological structures, because we have difficulty in Uniformitarianism showing any development of fossil forms today. Fossils aren't being formed on the ocean beds today. They had to be formed by some catastrophic cataclysmic upheaval in nature where suddenly a great deal of sediment was laid down quickly under pressure. Fossilize it, setting them within the sediment. You don't see it happening today.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구상에 오래 전에 대 격돌과 변동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마음을 닫고 듣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대 변동의 하나는 노아의 때에 있던 대 홍수 였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대 홍수는 수억년을 지나는 동안 묻혀있던 것들을 구성해 놓은 것이나 다양한 지층들 에 침전되어 있던 화석류들 보다 화석에 대해 더 실제적인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 면, 우리는 오늘날 화석의 모양의 변천이 보여주는 동일 과정설의 논리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석들은 오늘날의 해저에서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들은 지구상의 대 변동으로 갑작스럽게도 엄청난 양의 퇴적물들이 압력에 의해 급 속히 가라앉으면서 모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대 지각변동으로 화석화 된 것이죠. 오늘날엔 이런 일들을 볼 수 없습니다.

The flood explains the fossils. But they are willingly ignorant of 홍수는 화석을 설명해 주지만 거짓 선생들은 그것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5 절 6 절 말씀에..

that by the word of God the heavens were of old, and the earth standing out of the water and in the water: Whereby the world that then was, being overflowed with water, perished (3:5-6):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That God did bring cataclysmic judgment. That God did not stand aloof from His creation. That God did not just start things going and then step back and watched them in their evolutionary development. But that God has had an active hand in His creation and has continued to have an active hand in creation. 대 변동을 지구상에 불러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창조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계신 분은 아닙니다. 시작을 하신 것도 물론 아니죠. 한 걸음 물러서서 창조물들의 진화의 발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그의 창조물위에서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But the heavens and the earth, which are now, by the same word are kept in store, reserved unto fire against the day of the judgment and the perdition of ungodly men (3: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So God is going to judge the world again. Not with a flood, not with a universal flood; but the next judgment will be a fiery judgment of God upon the earth.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덮었던 대홍수가 아닌, 이 지구에 오게 될 다음 심판은 불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But, beloved, be not ignorant of this one thing, that one day is with the Lord as a thousand years, and a thousand years as one day (3:8).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In other words, we live in time; God lives outside of time. Time is relative. God outside of time. A day is as a thousand years, a thousand years is as a day. That makes a very interesting look then at Hosea where he speaks about, and I doubt if I can find it real quick. I think it's the second chapter if I remember. Hosea speaks about in sixth chapter. "Come, and let us return to the LORD: for he is torn, he will heal us; he is smitten, he will bind us up. After two days he will revive us" (Hosea 6:1-2).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 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하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삼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서 6 장 1 절 2 절 말씀입니다.)

This is the nation Israel and it's the voice of the remnant in the last days.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he is torn, he will heal us, he is smitten, he will bind us up. After two days will he revive us. In the third day he will raise us up and we shall live in his sight." A day is as a thousand years to the Lord. It was just about two thousand years ago that Israel ceased to exist as a nation. Now they are being revived. "After two days he will revive us." The third day lifted up. A thousand year millennial reign, the kingdom age, when Israel again becomes the center of the world. God governing from Israel. So "a day is as a thousand years, a thousand years as a day."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아 있는 자들의 외치는 소리입니다. (반복 생략)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하신 것은, 2 천년 전,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존재했던 것이 소멸되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다시 재기하고 있지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 하십시오. 또 말씀하시기를 ‘제 삼일에는 일으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되는 때, 천년 왕국은 열리게 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고 말합니다.

The Lord is not slack concerning his promise (3:9),

as some men count slackness; but He's longsuffering, and He's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repentance (3:9).

주의 약속은 어떤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That is, the promise of the coming again of Jesus Christ.

And so the only reason why God hasn't already set in motion the rapture of the church and the judgment of the world is His patience and His longsuffering, "He's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repentance." And so this is just time that God has given men to get right with Him.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나 교회의 휴거를 아직 미루시는 오직 한가지 이유는, 그의 오래 참으심 과 인내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므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와 함께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But in the days of Noah, God said, “My Spirit will not always strive with man” (Genesis 6:3). There comes a time when even the patience and the longsuffering of God has been expended. And that day of opportunity of grace is over and a person will face the awesome wrath of God. So the scoffers will say, “Where is the promise of His coming?” You know I heard that from the time I was a kid. My grandmother used to and they would scoff at the idea of the coming of Jesus Christ. The rapture of the church. God isn’t slack concerning the promise to come and take us to be with Him. He’s just longsuffering, “He’s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repentance.” 그러나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의 기간이 증폭된 것이죠. 은혜의 날, 기회의 날이 끝나고 인간은 하나님의 엄위 하신 진노를 대면해야만 할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은 ‘언제 그가 오신다고 약속했냐?’ 고 반문하지만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할 것이라 말하곤 하셨습니다. 교회의 휴거의 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과 우리를 그와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에 태만해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Bu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it will come] as a thief in the night; in the which the heavens shall pass away with a great noise, the elements shall melt with fervent heat, the earth also and the works that are therein shall be burned up. Seeing then that all these things shall be dissolved, what manner of persons ought ye to be in all holy manner of living or behavior and godliness (3:10–11),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 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This old world, this material world, this world of things is all going to burn. It's all going to be dissolved. If the material world is to be dissolved, what manner of persons ought we to be in our behavior and in godliness? 이제 이 온 세상, 이 물질로 만들어진 세상은 불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 녹아 없어지겠죠. 만일 이 세상이 녹아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과 행실은 어떠해야 될까요?

As we look for and hasting unto the coming of the day of God, wherein the heavens being on fire shall be dissolved, the elements shall melt with a fervent heat? Nevertheless we, according to his promise, look for the new heavens and a new earth, wherein dwelleth righteousness (3:12-13).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So this whole system is going to be dissolved. But we are looking for the new heaven, the new earth, the eternal kingdom of God. 모든 것이 녹아 없어진 후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Wherefore, beloved, seeing that you look for such things, be diligent that ye may be found of him in peace, without spot, and blameless. And just account that the longsuffering of our Lord is salvation (3:14-15);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Just realize that God's waiting is only allowing more people to be saved.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직 더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even as our beloved brother Paul also according to the wisdom that was given unto him hath written unto you; As also in all of his letters, speaking in them of the things; in which are some things hard to be understood, which they that are unlearned and unstable twist, as they do also other scriptures, to their own destruction (3:15-16).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There are always those who are able to take and twist the Scriptures to accommodate the things they want to do. Whenever you twist the Scriptures to accommodate the level upon which you want to live, and if you decided to live on a low level and you try now to twist the Scriptures to accommodate that level, you are twisting them to your own destruction.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항상 억지로 풀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왜곡하여 여러분의 사적인 생각을 더하거나 그렇게 저급한 수준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 저급한 삶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Ye therefore, beloved, seeing ye know these things before, beware lest ye also, being led away with the error of the wicked, fall from your own stedfastness. But [in contrast] grow in grace, and in the knowledge (3:17-18)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Going back now to chapter one, the whole idea was the knowledge of God, the knowledge of Jesus our Lord. So “grow in grace, and in the knowledge” 이제 다시 1 장을 돌아보면서,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지식을 위함이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18 절입니다.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To him be glory both now and for ever. Amen
(3:18).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찌어다

Next week we start the first epistle of John. There are three reasons, four reasons why John wrote this epistle. I want you to find all four. There are six places where John points to Jesus as our example, “As He,” “Even is He.” I want you to find all six. There are seven false professions that man makes. “If a man says.” “If a man say.” I want you to find all seven. There are eight places whereby John tells us how we know what we know. “Hereby we perceive.” “Hereby we know.” I want you to find how you know what you know. False professions men make; Jesus our example; and the reasons why John wrote the epistle. So you would have to study it carefully to find out these things. I hope you have to read it at least twenty times to get them. Okay, you got those things now? 다음에는 우리가 요한 1 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서신에는 왜 그 책을 써야 했는지 서너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나는 여러분이 그 네 가지를 다 발견해 내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모두 여섯 군데에서 예수를 가르켜 그가 우리 삶의 모범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같이’ 혹은 ‘예수님께서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여섯 가지도 모두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일곱 거짓 선생에 대해 설명하기를 ‘만일 사람이 말하기를 ‘ 혹은 ‘사람이 말하되’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일곱 가지 또한 찾아 내시기 바랍니다. 또 여덟 군데에서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서신에 ‘우리가 알기론’ 혹은 우리가 아는 바’ 라는 식으로 표현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신이 안다고 여기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왜 요한이 이것을 쓰게 되었는지도 다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발견해 가기 위해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이 서신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스무 번 이상 이 서신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벌써 찾으셨는지도 모르겠군요.

All right, the reasons why he wrote it. He tells you. “These things write we unto you.” And he tells you why he writes them. And then he talks about Jesus, “As He,” or “Even as He.” Six examples of Christ where He is our example. Seven places where people make false professions, A man says one thing, he’s doing another. And then how we know what we know. **For extra credit**, he uses the word “know” I think thirty-nine times. If you go in the Greek I think forty-one, but translated “know” thirty-nine times. However, there are two Greek words: one is “ginosko”, which is to know by experience. (앞 부분 반복 생략) 도움이 드리기

위해 말씀 드리는 것은, 사도 요한이 know - 즉, 알다 라는 단어를 서른 아홉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군데의 단어는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지노스코, 즉, 경험을 통하여 안다는 뜻입니다.

I may say to you “that stove plate is hot”. How do I know? I got a blister on my finger. I “ginosko”. I know by experience. I may say, “I know I’m right”. How do you know you’re right? I just feel it. That’s knowledge by intuition. That’s another Greek word, “eido”. I know a lot of things spiritually by intuition or the Holy Spirit has put the knowledge in my heart. I haven’t yet experienced it but I know it because of the intuition of the Holy Spirit within my heart, other things I know by experience. We know that we have passed from death unto life because we love the brethren. I’ve experienced this transformation and it’s proved by my love for the brethren. 내가 만일 여러분께 ‘ 난로의 냄비가 뜨겁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난로에 닿았던 내 손가락에 수포가 생겼기 때문이지요.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말하길, 난로가 뜨겁다고 말한 것은 내가 옳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겠지요. 나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안다’ 의 뜻은 직관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어로 ‘ 에이도’ 라고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많은 것을 직관을 통해서나 혹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부여하신 지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부여하신 것들은 내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지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때문이죠. 나는 이 변화를 경험했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의 사랑을 입증합니다.

Now without knowing Greek, figure out in its context whether it’s the Greek word “ginosko”, knowledge by experience or “eido”, knowledge by spiritual intuition or by the Holy Spirit. You’ll find that that will be an extremely fascinating study. I would be curious as to how many of them you get right. I would say that you’ll get a lot more right than what you think. As you have to think it out, though. If you think it out, you can see. Oh yeah, yeah, that’s right. It’s sort of like a driver’s license test; it just takes some just common sense, stopping and figuring it out. 그리스어를 알지 못해도 이제 경험에 의한 지식을 갖게 되는 ‘지노스코’ 와 직관에 의한 지식이나 성령의 인도로 깨닫게 되는 ‘ 에이도’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공부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옳다고 여기고 사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낼수록, 여러분의 식견이 넓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 면허시험과 같은데, 아주 상식적인 것들을 지키고, 멈추고 다시 분명히 짚고 넘어 가는 것입니다.

So that's extra credit. First John, we'll get started with it next week. Don't guarantee how far we'll go. We'll just get started. But I can promise you some very fascinating things are going to happen in your life as you study this book. I'll tell you the things that are going to happen next week. 보너스를 드릴까요. 요한 일 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진도를 나가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 책에서 공부하는 것 같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일들은 다음 주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y the Lord bless you and cause you to grow in grace and in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May you increase in your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Him. May you be freed from that power of darkness,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through lust. And may you grow up in Him in all things, and strengthened. And may you increase day by day in His richness, in His love, in His grace, in His word. In Jesus' name.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되, 은혜 안에서와 우리 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에 대한 여러분이 지식과 이해가 높아지길 바라며, 이 세상의 부패한 것들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길 기도합니다. 그의 안에 거하되, 강하여 지고, 날마다 그의 부요함과 그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의 말씀과 그의 은혜로써 자라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